

그 때 그 자리

70년대 말 노동운동의 외침 - YH

최순영



물류대란을 염려했던 화물연대 투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 궁금했는데, 몇 가지 문제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 참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들의 주장이 언론에 즉각 반영되고, 정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그야말로 살벌한 시대를 겪고 있었다. 노동자란 말 자체를 빨갱이가 쓰는 말이라 해 근로자라고 부르게 했으니 노동조합이란 걸 일반 노동자들이 알 턱이 없던 시절이었고, 노동운동은 어용이 아니면 목숨을 건 투쟁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YH에 다니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노동조합법이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도 노동운동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노동청(현재 노동부)이란 것이 있다는 사실도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회사의 탄압으로 해고를 당한 뒤 조사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됐다.

YH노동조합의 세 가지 과제

YH는 당시 한국의 수출산업을 대변하던 가발제조업체로 잘 나가던 대기업이었다. 1971년 직원 수가 4천 명에 달했고 1973년에는 석탑산업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가발제조업이 서서히 사양산업을 되어가던 1975년, LA에 살던 사주가 이윤을 미국으로 빼돌리면서 회사가 급격히 축소됐다. 오갈 데 없는 조합원들은 생존권 사수와 함께 불법으로 유출된 우리의 피와 땀을 되찾자는 애국적 사명도 함께 깨닫게 됐다. 한편 한국의 노동운동은 당시 대다수의 어용노조와 몇 안 되는 민주노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은 민주노조를 바닥에서부터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동일방직 똥물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그래서였는지 YH노동조합은 위의 두 가지 사명 외에 민주노조 말살에 맞선 민주노동운동

의 사수라는 삼중의 과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1979년 4월, YH노동조합은 회사측의 1차 폐업신고에 맞서 당시의 한국 분위기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업을 시작했고 경찰의 무력 탄압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 조합원들의 교육과 소집단 운동이 이 파업과 승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노조는 대부분 산업선교회와 연관되어 있었으나, YH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노조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조합원들의 소집단 활동과 교육 강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해 8월, 회사는 두 번째 폐업신고를 했고 우리는 기업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의 세 가지 사명 가운데 민주노조의 사수에 더 큰 목표를 걸게 됐고, 독재정부가 민주노조 하나를 깨는 데 얼마나 큰 힘을 들여야 하는지 똑바로 보여주자고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다. 농성은 기숙사에서 계속되고 있었지만 곧 농성장소를 옮겨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사주가 도망가 있는 미국 대사관을 현장 답사한 결과, 두 곳 다 진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리가 미국 대사관으로 갔더라면 최초의 반미 노동운동이 될 수도 있었고,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처음으로 산업선교회, 기독교청년들과 접촉해 상의를 하던 과정에서 신민당사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8월 9일 새벽 4시경, 농성하던 2백50여 명이 곤히 자고 있던 기숙사 문을 구사대가 들어내려 하자 불침번이 이를 바로 알려 모두 잠자리에서 깨어났다. 곧 비상대의원 대회가 소집됐고, 어디로 옮길지 최종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미국 대사관도 좋지만 신민당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세운 여러 목표를 해결하는 데 더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미리 짜여졌던 소집단을 기초로 해 새벽 눈속임 농성조와 신민당사로의 이동조가 나뉘었고, 차

비를 나눠 든 조합원들이 어둠 속에서 마포 신민당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YH 노동조합의 신민당사 농성 결정을 건네 들은 산업선교회와 기독교청년들은 고은 시인, 문동환 목사, 이문영 교수 등 당시 재야 대표들을 새벽에 방문해 김영삼 총재를 만나도록 요청했다. 재야 대표들의 느닷없는 아침 방문과 함께 YH 조합원들이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야당에 호소해 보자고 결의하고 이동 중이니 도와 달라는 요청에 마침 재야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깊었던 김영삼 총재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박권흠 대변인을 불러 당사로 나가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초조하게 신민당사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있던 1백80여 조합원들은 아침 9시 반이 되자 신민당사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

처음에 당사 안에 있던 신민당 사람들은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 흰 장갑을 낀 사람의 안내로 4층 강당에 들어가게 됐다. 조합원들은 이곳까지 무사히 오게 되자 서로 얼싸안고 땅바다에 주저앉아 감정을 누르지 못해 엉엉 울었다. 그리고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 라고 쓴 머리띠를 꺼내 머리에 두르고 준비해 간 플래카드를 꺼내 강당 앞 벽에 걸었다.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라는 플래카드로 우리의 몸을 감싸기도 했다. 신민당에서는 의자와 빵과 우유를 주었지만 기숙사에 남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목에 걸려 먹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취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억울함이 널리 알려질구나 하고 힘이 생겼다.

10시경 노조 대표 6명은 당사에 도착한 김총재를 만나 그 동안의 경위와 이곳에서 나가면 한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했다. 김총재는 "고맙다, 당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하며 강당에 올라와 조합원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박한상 사무총장은 보사부 장관에게 전화해 노

동청장은 YH무역 폐업에 책임을 지고 당사로 오라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신민당에게 여공들을 내보내라는 응답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상집회의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평가와 계획을 논의했다. 팀장들의 수고와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이 중요했다는 평가와 야당이 도와주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 잘 될 것으로 여기고 더욱 더 단결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1.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당사에서 나갈 수 없다.
2. 일체의 개인 행동을 삼간다.
3. 조합의 의사 전달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고 개인적인 의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4. 각 팀의 구성원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의장단에 보고하고 신속히 대책을 강구한다.
5. 낭설로 인한 동요를 없애기 위해 바깥의 소문은 내부에서 먼저 분석한 뒤 판단한다.
6. 전 조합원들이 시종 진지한 자세와 엄숙한 분위기를 지킨다.
7. 당사 내 기물은 깨끗이 사용하고 항상 정리정돈하며 질서를 지킨다.

101호 작전

그 해 여름은 무더위도 더웠다. 농성 3일째 되던 날 오후 7시쯤 당원 한사람이 오늘이 고비인 것 같다며 경찰이 쳐들어 올 것처럼 이야기했다. 우리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각오한 채 마지막 종결대회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애국가를 4절까지 암송해서 부르고 끝까지 굳세게 우리의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약속하니 울음바다가 됐다. 너무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신민당에서 우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김충재도 직접 강당으로 와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 말에 힘입어 불침번을 세우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신민당사에서의 농성(79년 8월 10일)

새벽녘 불침번의 울부짖음과 함께 우리는 어두운 강당 문을 밀치고 들어온 특수요원들과 무장 경찰들에게 포위된 채 한 명씩 강당 밖으로 둘러나가기 시작했다. 아우성과 울음소리로 온 몸으로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위 박정권 말기의 초경직 상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101호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고가 사다리차 2대, 물탱크차 2대, 조명용 소방차 2대가 불을 비추며 1천명의 정·사복 경찰관이 동원됐다. 일부는 매트리스를 든 채 투신을 대비하고, 일부는 정문으로 뒤쪽에서는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어 들어와 강당과 2층 총재실, 기자실 등을 습격해 마구 때려부수면서 연막가스를 터뜨렸다. 농성장에는 먼저 사복경찰들이 뛰어들어 열린 창문을 닫고 막아섰다. 잇달아 기동경찰 수백 명이 들어와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한 사람 앞에 4명씩 달려들어 사지를 번쩍 들어 계단을 통해 차례로 들어냈다. 한편 2층 회의실은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사복조가 벽을 부수고 들어닥쳤다. 모두 흰 장갑을 끼고 장발머리였으며, 손에는 벽돌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있었다. 대책을 숙고 중이던 김충재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당원 기자 등 30여 명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 주먹과 발길로 난타를 당했다. '키가 작고 안경 쓴 놈이 황낙주다' 하는 소리와 함께 황충무를 대여섯 명이 구둑발

로 짓이겼다. ‘저 놈이 박권흠이다. 그 새끼 악질이다’ 는 소리와 함께 박대변인의 손이 뒤로 꺾이면서 입을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 박용만 의원과 김형광 의원이 방망이에 맞아 쓰러지고, 청년국장은 실신상태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 취재기자들은 신분증을 보이며 기자라고 소리쳤지만 욕설과 함께 사진기는 박살나고 필름은 빼앗겼다. 동아일보 이종각 기자와 홍석희 기자, 신아일보 김철호 기자,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 등 취재기자 12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온 김충재는 “박정희가 시키더냐? 더 때려 부셔라. 너희들 망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다.

‘101호 작전’ 은 정확히 23분만에 끝났다. 이 과정에서 상집간부로 열심히 일하던 김경숙 동지가 주검으로 뒷마당에서 발견됐다. 결국 전태일 동지의 분신으로 시작된 1970년대 노동운동은 1979년 김경숙 동지의 죽음으로 마감되며, 한국 사회에 한 획을 그어 놓았다. 남은 조합원들은 경찰차에 태워져 시내 각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특히 강남경찰서에 연행됐던 상집간부 윤월상은 물고문까지 당했다. 기숙사에서 농성하던 조합원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관광버스에 실려 고향으로 강제로 보내졌다.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당시 부지부장이며 외부 관계 담당이었던 권순갑 동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출판사를 경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사무장이었던 박태연 동지 역시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부천 여성노동자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얼마 전 그때, 그자리 이후 늘 궁금해 남편과도 가끔 얘기를 했던 상집간부 출신 한 명을 경기북부의 어느 온천탕 욕조에서 만나게 됐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덕분에 있고 있었던 동지들이 알뜰살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YH 동지들은 그 때 그 장소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바르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 다시 느끼며 감사해 한 하루였다.



고 김경숙 동지 추도식

나는 한 수사관이 휴식 뒤 조서를 작성할 때마다 '자,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시작할까' 라고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하다. 나는 당시 임신 6개월째였고 그 때 그 자리, 그 이수라장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따뜻한 우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지금은 군에 입대해 있다. 한 세대가 지나간 것이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외국에는 공무원 노동조합도 있다는 얘기를 신화처럼 듣고 놀라던 1970년대가 엇그제 같은데, 오늘날에는 비록 법외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과제는 아직도 끝이 없지만 1970년대의 신화가 현실이 된 것이다. 오늘의 노동운동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 가려면 권익을 위한 투쟁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투쟁의 바탕이 되는 조합원 교육, 소집단을 비롯한 건강한 일상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조합원 개개인과 가정의 성장에도 관심을 두는 공동체 운동의 요소가 더 많이 발전되기를 바란다. ■

최순영 sychoi0125@hanmail.net | 부친가정법률사무소 소장, 부친 YWCA 부회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부대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부친 여성노동자회 회장, 부천시 1·2대 의원 역임.

